

수출입은행,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개발·시행

- 향후 10년간 태양광 단지 등 500개 해외 녹색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및 200개 유망 녹색 수출기업 육성

-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1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녹색 플랜트 해외진출 및 녹색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등 우리 녹색산업의 발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린 파이오니어 (Green Pionee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린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이란 연평균 200억 달러를 지원하여 2020년까지 500건의 해외 녹색플랜트 수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200개의 유망 녹색 수출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책을 말한다.
- 세계 녹색시장은 선진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중국 등 후발주자가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하에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는 아직 내수 기반이 협소하여 ‘국내시장 검증 후 수출’이라는 수출화 전략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녹색시장을 선도하기 어렵다.
 - 그 동안 후발주자인 우리 녹색기업들은 사업발굴 및 추진경험이 부족해 해외사업 수주가 어렵고 이는 다시 해외수주에 필수적인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 기회를 잃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
- 이에 김 행장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녹색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先 해외시장 창출 後 기반확대’라는 전략을 수립하여 초기 트랙 레코드와 해외사업 경험 축적기회를 제공하고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녹색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린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 이를 위해, 올해 9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2개월간 외부컨설팅 기관과 함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사업타당성과 효과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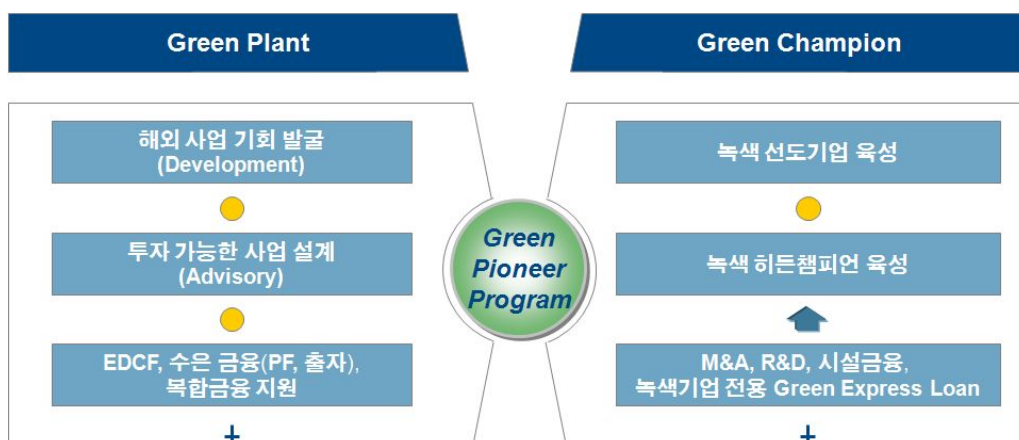
□ 수출입은행의 ‘그린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은 크게 ‘그린 플랜트(Green Plant)’와 ‘그린 챔피언(Green Champ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린 플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입은행은 유망사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 구조를 설계하는 금융자문(Development & Advisory)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금융과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녹색플랜트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발굴을 위해 수출입은행은 국제개발기구 등 해외네트워크와 개도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체제를 활용하고, 수출정보 제공 기관과 개발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현지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그린 챔피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 녹색수출 유망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상용화** 및 수출화***까지의 각 과정에 효과적인 여러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 수출입은행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세계적 녹색선도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R&D, M&A, License 확보 자금지원 등

** 시설자금, 첨단장비 및 희소원자재 수입자금 지원 등

*** ‘그린 플랜트’ 부문과 연계한 해외수주 주선, Green Express Loan 및 전대금융 제공 등



-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50억 달러의 녹색 수출과 3.4만 명의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그린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11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향후 정부와 협의 하에 해외 녹색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규정을 마련하고, Development & Advisory 서비스를 위한 조직 및 인력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 : “그린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세부 설명자료

문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재우(☎02-3779-6685)
의	홍보실 공보팀장 채상진 (☎02-3779-6065)

녹색플랜트 해외시장 창출 위한 수출금융 지원전략

– Green Pioneer Program –

2010년 11월

한국수출입은행

목 차

1. 녹색산업 수출화의 필요성	1
2. 녹색산업 수출화 전략의 방향	3
3. 수출입은행의 녹색산업 수출화 지원 전략	4
[Green Pioneer Program]	
4. Green Pioneer Program의 목표 및 기대효과	8
〈참고자료1〉 Track Record의 중요성	9
〈참고자료2〉 플랜트 산업의 의의	10
〈참고자료3〉 국제원조기구 주도 사업개발회사 InfraCo ..	11
〈참고자료4〉 Korean Contents 문제란?	12
〈참고자료5〉 녹색기업들의 애로사항	13

1. 녹색산업 수출화의 필요성

□ 세계 녹색산업의 성장세 및 경쟁구도

- 2020년까지 녹색산업은 연평균 7.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친환경 에너지 발전¹⁾ 분야의 빠른 성장이 전망됨.
- 각국 정부의 육성정책, 기업의 성장전략 등에 힘입어 녹색산업은 세계 경제성장률 3.5%('07~'20)의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일 전망
- * 자료원: Global Insight
- 세계 녹색시장은 선진국 기업들이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중국 업체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임.
- 후발주자인 국내 녹색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수출화 전략 마련이 시급

세계 녹색산업 분야별 성장전망 및 경쟁구도



주: 1) 2009년 순위로 태양광은 Cell, Module 발전량 기준, 풍력은 터빈 발전량 기준 자료: BoA

Merrill Lynch Global Research, Bloomberg, ADL Analysis

1) 친환경 에너지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이용한 발전 및 원자력 발전, CCS 등을 포함함. CCS(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 포집·저장)란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추출한 후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함.

□ 우리나라 녹색수출 현황 및 문제점

- 선진국이나 중국에 비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늦었고, 협소한 내수시장 등으로 인해 주력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출실적이 부족한 실정임.

- 신재생에너지 부문 수출 규모는 폴리실리콘(약 30%) 등 일부 부품을 중심으로 '09년 20억 달러에 불과

- 특히, 국내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Track Record** 부재로 수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선진국 시장은 보호무역 및 **Track Record** 부재로 진출이 매우 어렵고, 개도국 시장은 사업성 확보에 필요한 현지 지원정책 부재로 진출이 어려운 상황 ⇒ 국제입찰 수주는 어렵고 해외 투자형 진출이 가능한 상황

□ 국내 녹색기업의 수출준비 현황

- 국내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현 주력사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녹색사업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향후 10년간 총매출의 30~50%로 그 사업 비중을 확대할 계획*임.

* 자료원 : 기업인터뷰

- 국내기업의 기술역량 및 브랜드 인지도를 감안하면, 국내 녹색산업은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기본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국내 조선업체(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DSME 등) 및 전자/화학업체(삼성, LG 등)들은 현재 녹색부문의 수출 단계 또는 이에 근접한 단계

- 국내 태양광 기업의 기술력 수준은 선진기술의 90~100% 수준*이고, 풍력의 경우 발전기, 타워 부문에서 92~100%**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도 확보한 상황

* 자료원: 녹색성장위원회, ** 자료원: 지식경제부

2. 녹색산업 수출화 전략의 방향

□ 해외시장 창출을 통한 산업발전 선도

- 우리 녹색산업이 조선, 플랜트 산업처럼 세계일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 시장창출, 후 기반확대” 전략을 통한 수출화가 가장 적합한 모델임.
- 녹색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내시장 검증 후 수출화” 접근방식으로는 조기에 세계시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

□ ‘녹색 플랜트’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창출 및 산업연관 효과 제고

- 국내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플랜트 프로젝트의 발굴을 통한 시장창출 없이는 녹색부품 수출도 어려움이 예상됨.
- 선진 녹색기업의 진출방식도 단품 수출방식에서 플랜트 개발을 통한 진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해외시장 창출과 녹색기업 내실화를 통한 성장의 선순환 고리 형성

- 녹색플랜트 지원을 통한 선도적인 해외시장 창출과 동시에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종합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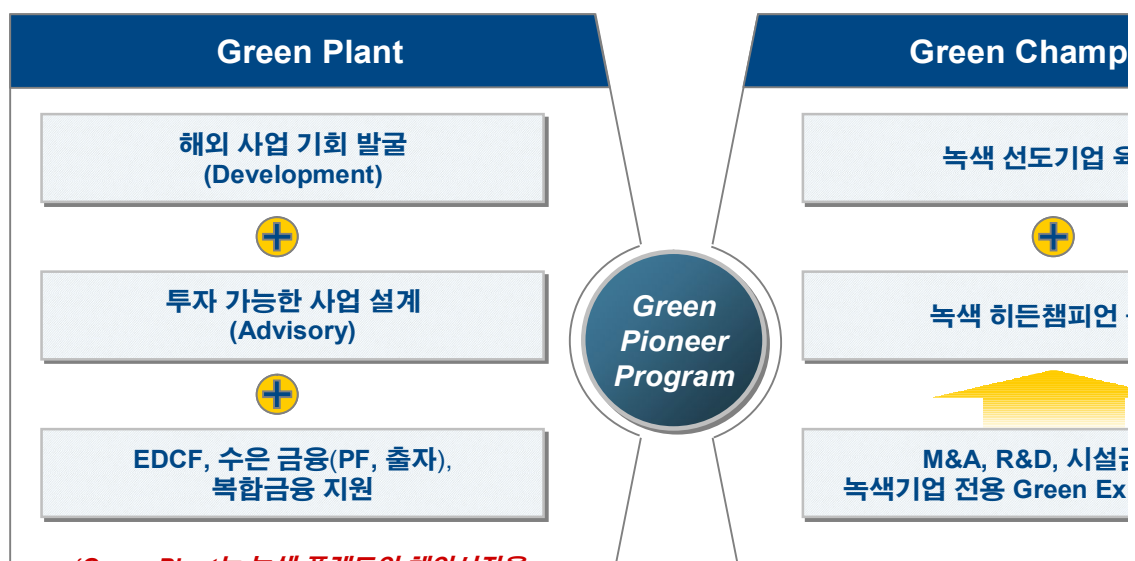
녹색산업 수출화 지원 방향



3. Green Pioneer Program : 수출입은행의 녹색산업 수출화 지원 전략

- ‘Green Pioneer Program(그린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은 녹색 플랜트의 해외진출 및 녹색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등 우리 녹색 산업 발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종합 지원책임.
- ‘그린 플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입은행은 해외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하여 수출기업의 **Track Record** 축적과 부품기업의 동반 진출을 함께 촉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유망사업을 발굴하여 투자 가능한 사업으로 개발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검토, **Security Package²⁾** 확보, 중장기 금융에 대한 주선과 자문 등 각 단계별 최적의 One-stop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아울러, ‘그린 챔피언’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녹색선도 기업과 녹색 수출기업을 육성할 예정임.
 - 기술력 확보, 상용화, 해외시장 확보까지의 각 과정에 효과적인 여러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그린 플랜트 부문과 연계하여 우리 녹색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

Green Pioneer Program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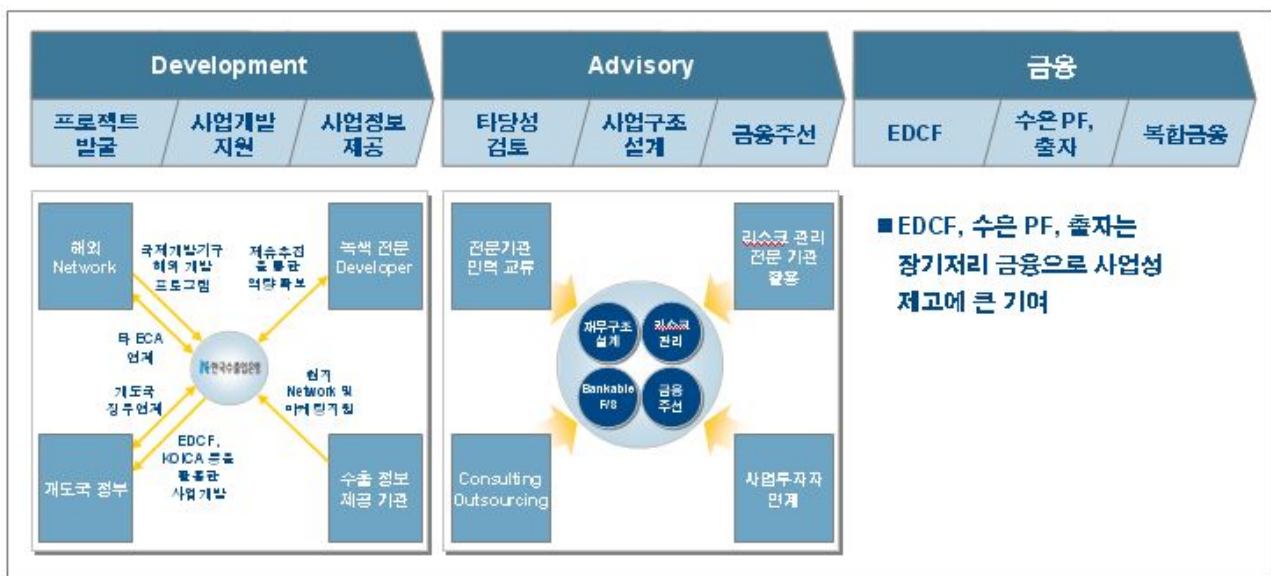


2) 환위험, 국가리스크, 전력가격 리스크 등 사업관련 리스크를 헷징하는 프로그램들

□ '그린 플랜트' 프로그램 (Green Plant Program)

- 수출입은행은 사업개발 및 자문(Development & Advisory)을 통해 해외 녹색플랜트 수주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국내 녹색기업들에게 사업 발굴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국내 녹색기업들에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개발은행(MDB), 녹색프로젝트 개발자 등을 통해 입수한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간 협상을 통한 사업 개발을 지원
- 또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예비 사업타당성 검토, 자금 조달 계획, 금융 주선 등 금융자문을 제공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사업설계 및 금융주선으로 사업실행 가능성 제고
- 또한, 수출입은행은 D&A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해외 Network 활용 극대화 및 유관기관과 제휴 강화를 추진할 예정

Development & Advisory 서비스 개요



- D&A 서비스와 더불어 수출입은행은 녹색플랜트에 대한 직접 출자, 프로젝트파이낸싱 (PF)³⁾, EDCF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금융의 참여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 일반적인 플랜트보다는 규모가 작아 PF구성이 어려웠던 신재생 발전 플랜트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단독으로 PF자금을 지원 하여 사업의 조기 실행을 지원
-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은 선제적 출자를 통해 유력한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지 금융 조달 능력을 제고
- 또한, EDCF와 수출입은행 금융을 결합한 복합금융 제도를 신설하여,
- D&A 서비스와 함께 EDCF 등 원조 자금과 수출입은행의 금융 (P/F, Mezzanine, 출자)을 각 사업특성에 따라 결합하여 개도국 대상 녹색플랜트 사업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
- EDCF와 수출입은행 금융을 결합한 복합금융은 개도국에서의 사업 전개를 통해 국내 녹색기업들의 **Track Record** 확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녹색 산업관련 국산 기자재(**Korean Contents**)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

<참고> D&A와 복합금융의 시장창출 잠재력 및 수익성 제고 효과

- 5년간 복합금융 지원액 30억불은 풍력기준 2GW 규모
 - 정부의 국내 풍력단지 건설목표('19년까지 2.5GW) 대비 사업 창출 잠재력 상당
- 기업입장에서는 금융자문 비용(총사업비 기준 3%) 절감, 금리절감(총사업비 기준 약 1.5%)으로 총 4.5% 정도 수익률 향상 가능
 - 기업의 해외사업 IRR인 5-10% 감안시 큰 효과

자료: ADL

3) 자금조달의 기초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있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수법.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선진금융기법.

□ '그린 챔피언' 프로그램(Green Champion Program)

- 수출입은행은 유망기업을 녹색 히든챔피언 또는 녹색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성장 전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녹색기업별로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심사 및 여신 제공시 우대할 예정이다.
- 기술력 확보 지원
 - 녹색기업 R&D 자금 지원 확대
 - 기술확보를 위한 해외업체 M&A 및 기술 Licensing* 자금 지원 확대
 - * 해외 선진기술 도입
- 상용화 지원 강화
 - 양산화를 위한 시설재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장비 및 희소 원자재 수입자금 지원
- 수출 지원 강화
 - 해외수주 기회 주선 : 그린 플랜트 부문과 연계 지원
 - 녹색기업 전용 Express Loan* 신설
 - * 녹색기업앞 신용공여한도를 미리 설정하여 신속한 금융을 제공

Green Pioneer Program 출범에 따른 신규제도 도입 및 제도 개선사항

		1	2
		해외 녹색플랜트 Development & Advisory 지원	원조자금(EDCF)과 수은금융을 결합한 복합금융 지원
Green Plant	3	녹색 플랜트 직접 출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녹색프로젝트 SPC에 대한 출자 지원 : 리스크 분담 및 사업공신력 제고로 민간투자 촉진 ※ 해외녹색 PF에 대한 단독지원 : 소규모 사업으로 협조응자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단독지원으로 사업수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4	Green Express Lo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업 전용 Credit Line 도입
Green Champion	5	녹색 수출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녹색기업 R&D 자금 지원 : 연간 매출증 수출비중 기준 30%로 하향 ■ M&A 및 Licensing 자금 지원 : M&A 자금 지원규모 100%로 상향 ■ 시설재 자금 지원 : 연간 매출증 수출비중 기준 30%로 하향 ■ 수입자금 지원 : 녹색기술 및 연관 시설재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 확대 ■ 녹색부문에 대한 거치기간 최장 5년으로 연장 ■ 녹색기업 대상 우대금리 : 50bp (기존) ■ 히든챔피언 선정시 녹색기업 우대

4. Green Pioneer Program의 목표 및 기대 효과

□ 총 지원 규모

- 수출입은행은 Green Pioneer Program을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200억 달러***를 녹색기업들에게 지원할 계획임.

* 녹색관련 여신 부분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5%씩 증가한 수치

- 이를 통해 총 **500여건의** 녹색 플랜트의 해외 건설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200개의** 녹색 수출기업을 육성할 예정임.

- 2010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수출기업은 약 40여개에 불과

□ 국민 경제 파급 효과

- 본 프로그램을 통해 10년간 연평균 **350억 달러**의 수출 창출, **3.4만명**의 고용 창출, **185억 달러**의 **GDP** 창출 등과 같은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Green Pioneer Program 지원 목표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지원 목표



향후 10년 국가경제 파급효과

10년간 (연평균)

수출 창출	
350억달러	▪ 2009년 총수출 대비 9.6%
고용 창출	
3.4만명	▪ 2009년 취업자 대비 0.14%
GDP 창출	
185억달러	▪ 2009년 GDP 대비 1.9%

<참고자료>

<참고자료 1.>

- Track Record 란?

- 실제 현장에서 운전 경험 실적을 말함 - 운전 경험 실적을 통해 제품에 대한 성능 및 내구성 검증이 이루어짐

- Track Record는 왜 필요한가?

- 발전기는 설치 후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해 전력 산업에서 장기 신뢰성은 사업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
- 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자 및 금융기관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100대 이상 운전 실적을 요구

- Track Record가 없을 때 불이익은?

-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참여 자격요건에 Track Record 조건을 명시해 높아 Track Record가 없으면 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
-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Track Record가 없으면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높은 금리 요구
- 보통의 경우 제품 보증 기간은 1~2년이지만, Track Record가 없으면 3년 이상 제품성능을 보증해야 해서 수출에 어려움 발생
- 독일 덴마크 등 주요 선진업체는 자국의 Track Record 확보정책을 통해 성장했지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Track Record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리한 조건으로 수출해야 하는 상황

<참고자료2.>

- 플랜트 산업이란?

- 전력·석유·가스·담수 등 제품이나 원료, 중간재 등을 생산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산업
- 해외에서 플랜트를 수주하면 설비와 부품 등의 일부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수주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수출로 연결
- 녹색플랜트는 이 가운데 풍력, 태양광, 원전, 수처리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을 생산하는 설비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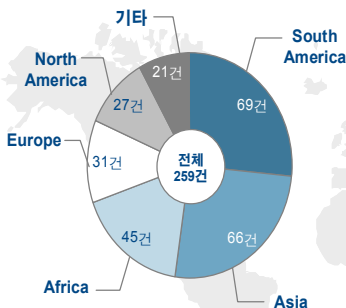
- 플랜트 산업의 의의는?

- 플랜트 산업은 플랜트를 개발자로부터 수주받아 기획, 설계하고 필요한 자재 및 설비를 조달하여 시공하는데 이르는 모든 분야를 포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하는 특성을 가진 고부가가치 지식집약 산업이며, 관련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큼.
- 특히 플랜트 수출은 국가간 마찰이 적은 편이어서 선진국에서는 전략적인 수출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음.

- 세계 녹색플랜트 사업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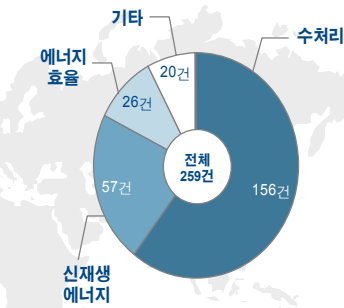
- 개도국 지역의 수처리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녹색 플랜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플랜트 발주량의 25% 이상에 해당

지역별 발주현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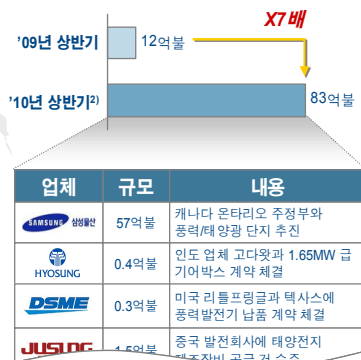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위주로
녹색 플랜트 사업 다수 진행예정

녹색 산업별 현황¹⁾



수처리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위주로 녹색 사업 진행 예정

신재생에너지 해외수주 규모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대규모
플랜트 수주 실적 전무

1) 2010년 10월 현재, 해외건설협회에 등재되어 있는 발주 리스트 1,045건 기준;

2) 2010년 1월 ~ 6월 수주 실적 기준

자료: 해외건설협회, 지식경제부

<참고자료3.>

국제 원조기구 주도의 사업개발회사 - InfraCo

- UNEP는 개도국 중심으로 확대될 녹색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원조 자금, ECA 등과 같은 공적 금융(Public Finance)이 사업개발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도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이를 위해 UNEP는 Project Development Company를 설립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획득, 발전구매계약 협상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업개발비용을 무상 또는 성공불 조건으로 지원하는 한편, 출자 및 메자닌 금융과 같은 후순위 금융을 확대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음.
- 이러한 UNEP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된 곳이 InfraCo로서, InfraCo는 사업 개발 및 자문, 위험자본 출자, 장기금융 주선의 원스톱 일관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국제 원조기구 주도의 녹색 플랜트 등 인프라를 개발하는 회사임.
- 주요 주주를 World Bank, 독일의 KfW로 가진 InfraCo는 사업기회 발굴, 지원사업의 Bankable Feasibility 실시 및 Financial Model 개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비용 분석, 현지 인허가 취득, 장기 판매계약 (Off-take Agreement) 체결, EPC 및 O&M 계약 협상 지원, PF방식의 장기금융 주선 (원조자금, 대출, 출자 등), 위험 자본 출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도국 인프라 사업을 개발, 지원하고 있음.

<참고자료4.>

- Korean Contents 문제란?

- 해외 플랜트 진출 시 국산 부품 및 기자재 사용 비율을 높이는 문제. 현재 우리나라 녹색 플랜트의 경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이 싼 중국 부품을 쓰는 비율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Korean Contents 비율을 높이는 문제가 심각
- 국내 A사가 수주한 한 해외 풍력/태양광 단지 개발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부품을 조달해 Korean Contents 비율은 0%에 이름. A사는 “중장기적으로는 Korean Contents 비율을 높일 전망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힘.

- EDCF 란?

-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상응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7년 6월 1일 설립된 정부의 개발원조자금.
- 기금의 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이며, 실무는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행
- EDCF금융은 연 0.01~2.5%의 저리에 상환기간이 25~40년(거치기간 7~15년)인 초 저리 장기 자금
 - 신성장분야(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원시 EDCF I, II 그룹국가 무이자 지원, 기타 국가 0.05%p 금리 인하

- EDCF 기금을 활용한 복합금융이 Korean Content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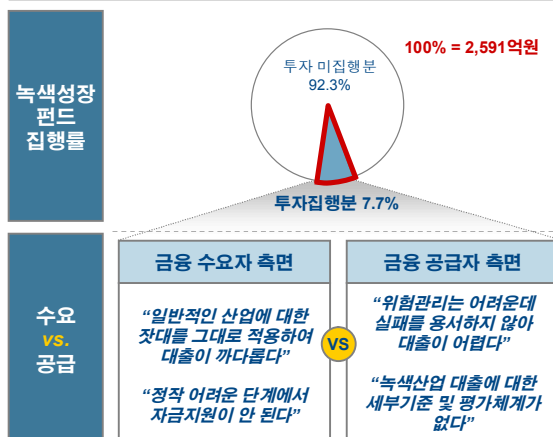
- EDCF금융은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원조(Tied Aid)'가 많아서 우리나라의 부품, 기자재 및 인력 조달의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개도국 플랜트 진출에 EDCF 기금과 연계한 수은의 복합금융을 제공할 경우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이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또한 개도국 입장에서 EDCF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높아지게 되면 개도국의 Green Growth에 기여하게 됨.

<참고자료5.>

우리나라 녹색 산업 금융지원 현황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

- 녹색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나, 녹색 금융은 현재 효과적인 지원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다수의 녹색성장 펀드들의 경우 국내 투자 중심, 단기 투자 성향 및 까다로운 투자조건 등으로 인해 투자 집행률이 7.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
 - 녹색 플랜트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 기회가 해외에 있는데, 국내 정책기관 주도로 조성된 펀드들의 경우 주투자지역이 국내여야 한다는 조건 존재
 - 녹색 플랜트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펀드들의 단기 투자(3년) 회수 성향이 늘어나고 있음.
 - 일부 펀드들의 경우 손실시 우선 보장 등 투자수익률에 대한 과도한 보장을 요구
 - 따라서 현재 조성된 펀드들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녹색사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

녹색 금융 지원현황



녹색 금융 지원 펀드 미활성화

주요 펀드	추진기관	펀드 활용 현황
녹색성장 펀드	MKE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집행률이 7.7% 수혜 기업 총 8개
한국모태 펀드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65개 중 신성장 관련 펀드 10개 미만
전남 그린 에너지 펀드	전라남도 Jeollanam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범 1년 동안 투자 실적 1건 전체 조성 목표액의 5% 모집
설비투자 펀드	NPS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 조성액 50% 7개월 이상 미집행 1조원의 설비투자펀드 조성 포기
글로벌 인프라펀드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계획의 절반인 2천억원 수준 조성 민간 기업참여 유도 실패

- 특히 해외 녹색플랜트 산업의 경우 산업적 특수성 때문에 기업과 금융 기관 사이에 Miss Matching 발생
 - 해외 녹색플랜트는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진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 건설, 운영에 2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우며,

- 중국, 독일 등 경쟁 국가들에 비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녹색 산업에 대한 위험을 적게 부담하려 해 가격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점을 기업들은 호소
- 반면, 금융기관들은 녹색 산업 대출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평가체계가 없는데다, 위험관리는 어려운데 실패를 용서하지 않아 아예 대출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밝힘.
- 따라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위험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